지식경제부	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11월 27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수출입과 조영태 과장(2110-5331), 이디도 사무관(5335)		

무역 1조 달러 달성, 세계 무역 8강 진입 전망

- 4/4분기 업종별 수출입동향 점검회의 개최 -

□ 지식경제부는 11.26일(월) 홍석우 장관 주재로 업종별 협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수출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내년도 수출 여건 진단을 위한 업종별 수출입동향 점검회의를 개최

○ 금번 간담회는 세계 경기침체로 어려웠던 올해 수출을 최종 점검하고,

○ 자동차, 조선 등 주력 수출 업종과 플라스틱, 비철금속 등 중소수출 업계의 수출애로사항 및 수출 지원 요청사항을 검토

□ 홍석우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 수출이 대외 여건 악화로 다소 부진했으나 10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,

○ 12월 중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무역 8강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힘

* 우리나라 무역규모 순위 변화 : ('00~'02년) 13위 → ('03~'06년) 12위 → ('07~'08년) 11위 → ('09년) 10위 → ('10~'11년) 9위 → ('12년 전망) 8위

○ 또한 국내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수출이 경기회복의 선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적극적인 마케팅활동 등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

□ 지식경제부는 최근 수출입동향 및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세계적으로 수출 및 교역이 감소추세임에도 불구하고,

* 주요 70개국 교역증가율(%) : (3월) 0.6, (4월) △1.2, (6월) △3.6, (8월) △5.8, (9월) △3.7

○ 우리나라 수출은 독일, 대만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전* 하고 있으며,

* 주요국 수출증가율(1~9월 누계, %) : (獨) △5.1, (臺) △3.9, (韓) △1.6

○ 특히 10월 들어 월간 수출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되어 우리 경제 회복에 청신호를 주고 있다고 밝힘

* 우리나라 수출증가율 추이(%) : (7월) △8.7 (8월) △6.0 (9월) △2.3 (10월) 1.1

□ 참석자들은 '13년에도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둔화와 단가 하락, 보호무역주의 점증 등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

○ 주요 업종별 협회들은 EU 재정위기 장기화 등에 따른 세계적 수요 부진을 수출 확대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꼽았으며,

- 글로벌 교역 환경 악화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점증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도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언급함

- 경제 위축 및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과 채산성 악화로 금년 말 및 내년 수출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함

① (수출단가 하락) 철강, 비철금속, 석유화학 등은 수출 물량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,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

* 철강 : '12.1~10월 수출물량 전년비 7.5% 증가 했으나 수출단가는 9.5% 하락
* 석유화학 : '12.1~10월 수출물량 전년비 7% 증가 했으나 수출단가는 7.1% 하락

② (보호무역주의) 신흥국 중심 반덤핑관세 부과 등 수입규제 조치(철강)* 및 중국 수입관세 인상(디스플레이)* 등 보호무역주의 조치 강화

* 철강 : 브라질(3건), 태국(3건), 인도네시아(2건), 말련(1건) 등 반덤핑 제소 확대
* 디스플레이 : 中 32인치 이상 LCD 패널 수입 관세율 인상('12.4월, 관세율 : 3% → 5%)

○ 참석자들은 수출 확대를 위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신흥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수입규제 움직임에 적극 대처할 것임을 밝히고,

- 전시회, 상담회 등에 적극 참여*하며 시설 확대를 통해 수출 여력을 확보**하여 '13년에도 수출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언급

* (섬유) 2012 뉴욕 한국섬유패션 Trade week 개최(11.27~29일)
(정보가전) 주요 해외전시회 한국 공동관 참가(대만, 영국, 독일 등, '13.4~)

** (석유화학) 주요업체(현대오일뱅크, 동서석유 등) 투자 증대를 통해 수출 경쟁력 확보
(비철금속) 알루미늄 캔 재활용 시설 확대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

□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외마케팅, 무역금융 지원 확대 등 수출 촉진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

참고 1 업종별 수출입동향 점검회의 개요

□ 회의 목적

○ 금년도 13대 품목별 수출 전망을 최종 점검하고 품목별 여건 점검

○ 내년도 품목별 수출 여건 및 수출 전망을 점검하고 업종별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 및 지원 요청 사항 논의

□ 회의 개요

○ **(일시/장소)** '12.11.26(월) 16:00~17:00 /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2(지하 2층)

○ **(참석자)** 지경부, 업종별 협회·단체 등 약 20명

- 지경부 : 장관(주재), 무역투자실장, 무역정책관, 소관 국장 등
- 업계 대표 : 조선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와 플라스틱연합회 등 중소 업종별 단체

○ **(회의 내용)** 품목별 수출 여건과 전망을 점검하고 지원 요청사항 논의

□ 진행 순서

시 간		내용	비고
16:00~16:05	5"	인사말씀	장관
16:05~16:10	5"	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전망	수출입과장
16:10~16:55	50"	업종별 수출여건·전망 및 애로사항 건의	업종별 협회
16:55~17:00	5"	마무리 말씀	장관

참고 2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전망

1. 최근 수출입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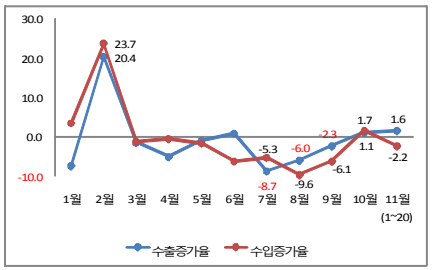
○ '12.1~10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.3% 감소한 4,554억불, 수입은 0.7% 감소한 4,331억불로 무역수지는 223억불 흑자

< 1~10월 수출입 규모 >

(단위 : 억불, %)

구분	'11년	'12년	차이
수출	4,614.57	4,553.77 (△1.3)	△60.80
수입	4,359.14	4,330.52 (△0.7)	△28.62
무역수지	255.43	223.25 (△12.6)	△32.18
무역규모	8,973.71	8,884.29 (△1.0)	△89.42

< 수출입 증가율 추이 >



2. 경쟁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수출

○ 올해는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출 및 교역감소가 세계적인 추세

- '12.2Q부터 세계교역이 감소세로 전환되어 지속적인 감소 추세

＊ 주요 70개국 교역증가율(%) : (3월) 0.6, (4월) △1.2, (6월) △3.6, (8월) △5.8, (9월) △3.7

- 독일, 프랑스, 대만 등 **주요 경쟁국**의 **수출**[*]도 **동반 감소세**

＊ 주요국 수출증가율(1~9월 누계, %) : (獨) △5.1%, (佛) △5.3%, (臺) △3.9%

- 10월 들어 동북아 3국 중 중국의 수출증가세가 두드러지고, 우리나라는 플러스로 전환된 반면 일본은 여전히 침체 국면

＊ '12.10월 한중일 수출증가율 : (韓) 1.1%, (中) 11.6%, (日) △6.5%

○ 세계적인 교역둔화에도 불구하고 **우리나라 수출**은 **상대적으로 선전**

- 올해 1~10월 물량기준 수출[*]은 전년동기대비 4.2% 증가

＊ 물량기준 수출 : ('11.1~10월) 15,168만톤 → ('12.1~10월) 15,803만톤(4.2%↑)

3. 금년도 수출입 전망

○ **금년에도 무역 1조달러 달성**은 가능하나, 달성시점은 작년 무역 1조달러 달성일인 12.5일보다 다소 지연될 전망

○ '12.1~9월 무역규모는 7,979억불로 영국에 이어 세계 8위이며, 올해 이탈리아를 제치고 **사상처음**으로 **세계무역 8강**에 **진입**할 것으로 **전망**

＊ 우리나라 무역규모 순위 변화 : ('00～'02년) 13위 → ('03～'06년) 12위 → ('07～'08년) 11위 → ('09년) 10위 → ('10～'11년) 9위

< 전세계 무역규모 순위 >

(단위 : 억불)

순위	'02년	'03년	'07년	'09년	'11년	'12년 (1~9월)	'12년(1~9월) 무역규모	전년대비 증감
1	미국	미국	미국	미국	미국	미국	29,027	4.4%
2	독일	독일	독일	중국	중국	중국	28,425	6.2%
3	일본	일본	중국	독일	독일	독일	19,302	△6.3%
4	프랑스	중국	일본	일본	일본	일본	12,772	3.0%
5	영국	프랑스	프랑스	프랑스	프랑스	프랑스	9,274	△6.0%
6	중국	영국	영국	네덜란드	네덜란드	네덜란드	9,237	△3.2%
7	이태리	이태리	네덜란드	영국	영국	영국	8,574	△1.7%
8	캐나다	네덜란드	이태리	이태리	이태리	한국	7,979	△1.3%
9	네덜란드	캐나다	벨기에	벨기에	한국	이태리	7,371	△10.3%
10	벨기에	벨기에	캐나다	한국	홍콩	홍콩	6,942	2.4%
11	홍콩	홍콩	한국	홍콩	벨기에	캐나다	6,867	1.9%
12	멕시코	한국	홍콩	캐나다	캐나다	벨기에	6,587	△8.2%
13	한국	스페인	스페인	스페인	러시아	러시아	6,308	3.3%
14	스페인	멕시코	러시아	싱가폴	싱가폴	싱가폴	5,911	1.5%
15	대만	태국	싱가폴	러시아	인도	인도	5,800	0.9%

참고 3 업계가 본 수출입 여건 및 수출 확대 방안

업종	수출 여건	수출 확대 방안
철강	○ (공급 과잉)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철강공급 과잉 심화로 수출 감소 불가피 ＊ 중국의 공급과잉 심화로 9월까지 순수출이 3천만톤(전년대비 23%↑) 돌파 ○ (원료가격 하락) 원료가격 하락으로 철강수출단가 약세가 지속되면서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액 감소 전망	○ (고급재 시장 공략) 상대적으로 채산성이 양호한 미국, 일본 등 고급재 시장 수출비중 확대 ○ (통상 대응) 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수입규제 움직임에 적극 대처 ＊ AD피소 현황: 브라질(후판, 전기강판, 도금강판), 태국(열연강판, 칼라강판, 도금강판), 인니(냉연강판, 석도강판), 말련(선재) 등 ○ (고부가가치 전략시장) 자동차, 에너지 플랜트 등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전략시장 위주 수출확대 추진
석유화학	○ (단가 하락) 적극적인 설비증설로 수출 물량은 증가하였으나, - 단가하락에 따른 수출 채산성 악화로 업계 경영난 지속 ＊ 1~10월 수출단가 : $1,578/ton(7.1%↓) ○ (수요 둔화) 中 수요 둔화는 '13년에도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며 일부 신흥시장 중심 소폭 증가 예상	○ (투자 증대) 주요업체의 투자 증대를 통해 수출 경쟁력 확보 ＊ '13년 설비증설 : 현대오일뱅크(PX 80만톤), 동서석유(AN, 25만톤) ○ (신흥시장 진출) 인도, ASEAN 등 신흥시장 진출 확대로 시장 다변화 추진 ○ (수입규제 방지) 사절단 중국 방문으로 수입규제 사전 방지 효과 기대 ＊ '13.10월 중 중국 시안 방문 예정
일반기계	○ (신흥국 수요 회복) 중국, 중동, ASEAN 등의 경기는 투자심리 회복으로 회복세 가속화 전망 - 일본, 유럽 등의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에 그칠 전망	○ (시장 맞춤형 제품) 다양한 세계시장 요구수준에 맞는 시장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강화 ○ (마케팅 지원) EU, GCC 및 러시아, 브라질, 베트남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시장개척 지원 강화

업종	수출 여건	수출 확대 방안
자동차	○ (금년 소폭 증가) 유로존 재정위기, 부분파업 등에도 불구하고 국산차 브랜드 가치 및 품질 향상에 따라 소폭 증가 ○ (내년 소폭 증가) 국산차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주요국과의 FTA 체결 확대 등 수출 여건 개선 * '13년 EU 승용차관세 추가 인하: 1,500cc이하(6.6→5.0%), 1500cc초과(4.0→2.0%) - 다만 해외생산 증대로 인한 수출대체 확대와 원화강세는 부정적 요인 * 해외생산 전망(민대) : ('12) 360 → ('13) 380	○ (마케팅활동 강화) 수출전략 모델 투입 확대 및 스포츠 경기 후원*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* 프랑스 프로축구팀 '올림피크 리옹' 스폰서쉽 체결, 20214년 브라질 월드컵 공식 후원사로 현지 마케팅 활동 전개 등 ○ (수출단가 상승) 대형차 및 SUV 수출 확대와 신모델 '제값받기' 전략을 통한 수익성 개선 * 현대차 미국에서 2013년형 그랜저 HG 6,605불 인상(4월)에 이어 250불 추가 인상(9월) ○ (FTA 적극 활용) EU, 페루, 미국 등 기발효 FTA와 터키, 콜롬비아 등 발효 예정인 FTA 적극적으로 활용
조선	○ (내년 소폭 증가) '12년 인도 지연된 선박의 '13년초 조기 인도 및 고수익 특수선 인도 증가 전망 ○ (수주 전망) 상선 부문은 침체, 해양플랜트 부문은 지속 증가할 전망	○ (기확보 물량 안정화) 계약취소, 인도연기 방지 등 ○ (선박건조자금 확보) 제작자금 및 자구책 추가 강구 - 수주감소, 선박대금 결제방식 변경(Heavy Tail) 등에 따라 조선사 유동성 확보 어려움 가중
섬유류	○ (4분기 수요 둔화) 세계 경기 침체 지속과 중국의 수요 감소 지속 * 섬유류 수출증가율(%) : ('12. 7월) 1.9 → (8월) 3.2 → (9월) △4.9 → (10월) △5.2 ○ (내년도 수출 회복) 선진국 경기의 점진적 회복 및 미국, 터키 등과의 FTA 발효, 한류 효과 등으로 회복 기대 - 다만 유럽 재정위기 확대에 대한 우려와 환율 하락세가 장기화될 경우 수출 부정적 영향 예상	○ (전시상담회 개최) 2012 뉴욕 한국 섬유패션 Trade week 개최(11.27~29일) - 글로벌 기업 구매정책 설명회, 바이어 기업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수출성과 조기 창출 도모 * '12.9월 지경부 수출촉진 비상대책 수립에 따라 특별지원 사업 선정 ○ (시장개척단 파견) 페루/브라질, 두바이/터키 지역 수출 판로 확대 등 위해 섬유 시장 개척단 파견

업종	수출 여건		수출 확대 방안
반도체	○ (4분기 호조) 미(美) 연말경기 호조, 저가 태블릿 본격화 등으로 양호한 환경 * 수출증가율(%) : ('12.1Q) △2.3 → (2Q) △0.9 → (3Q) △1.3 → (4Q^{P}) 5.3 ○ (내년도 회복) 스마트기기의 고성장 지속, Win8 본격화, 공급량 조절 등으로 시장 성장 예상 - 메모리 수출은 1.2% 증가에 그치겠으나 '12년 투자한 설비가 가동됨에 따라 시스템반도체는 12.9% 증가 전망		○ (메모리) 미세화투자 지속 및 제품간 Mix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확대 - 제조시설 조절을 통한 공급자 중심 구도 및 고객 솔루션 능력 확대 ○ (시스템) 제조기술 리더십 확보 및 고객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 - 32/28nm 양산능력 강화, 애플의 위탁제조선 이전에 따른 고객 다변화
정보통신	휴대폰	○ (내년 감소폭 축소) 스마트폰 시장 확대, LTE서비스 확산 등으로 감소폭 축소 전망	○ (전시회 참여) 한국전자산업대전(10.9~12일), 상해아시아전자전(11.3~5일)을 최적의 마켓플레이스로 활용 * 수출상담액 : 17억불, 계약액 2.5억불 예상
	가전	○ (내년 소폭 증가) 차별화 제품의 수요확대로 소폭 증가 전망	○ (해외전시회 참가) 주요 해외전시회 한국 공동관 참가를 통해 중소 업체 수출 확대 지원 * 대만 타이페이('13.4월), 영국 버밍햄('13.5), 독일 베를린('13.8) 등
	컴퓨터	○ (내년 소폭 증가) Windows8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, 올인원·태블릿PC 성장	○ (수출경쟁력 기반 조성) 특허분쟁 대응력 향상, 국제환경규제 대응, TBT 대응, FTA 활용 확산 등
디스플레이	○ (LCD) 수급여건의 점진적 개선에 따른 패널 가격의 안정화 전망 - 중국 중심의 저가 대형 TV시장 확대 및 고부가가치 패널 수요 증가 기대 * LCD 패널 평균 가격 추이 : ('10.4Q)704→ ('11.4Q)632 → ('12.2Q)665 → (4QF)686 ○ (OLED) 대형화 지연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패널을 중심으로 시장 확대되면서 안정적 수출 지속 예상 * AMOLED 패널 시장 및 비중(금액%) : ('11)35/3.2 → ('12F)65/5.4 → ('13F)95/7.2		○ (세제지원 확대) 수입 핵심 장비·소재에 대한 할당관세 품목 확대 필요(현행 1개)

업종	수출 여건	수출 확대 방안
석유 제품	○ (개도국 수요 증가) 개도국의 산업 생산 증가 및 수송용 석유류 수요 확대 ○ (FTA 효과) 한-미 FTA 발효에 따라 對미국 항공유 수출 확대	○ (모니터링 강화) 시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리스크 관리 강화 ○ (적극적 마케팅) End-user와의 접촉 확대 등 Direct Marketing 강화 - 수급/지역/제품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- 수출시 직접 trading에 나서 안정적 제품공급 및 장기적 신뢰 구축
자동차 부품	○ (현지생산 증가) 완성차 업체의 현지 생산 증대에 따른 부품 수출 증가 기대되나 경기침체 영향 상존 * '12.7월 현대차 중국 3공장(40만대), '12.11월 브라질 신공장(15만대) 가동	○ (전시·상담회 개최) 해외 완성차업체와의 상담회를 통해 수출 촉진 * 혼다 수출상담회('13.3월, 혼다 본사), 미쓰비시/스바루 수출상담회('13.6월, 킨텍스)
비철 금속	○ (수요, 단가 하락) 미국, 유럽, 중국 수요 둔화와 비철금속 가격 약세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 전망 * 주요 비철금속 LME가격(전년대비 %) : (구리) △12.4 (아연) △13.2 (알미늄) △18.6	○ (시설 확대) 알루미늄 캔 재활용 시설 확대로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○ (슬리팅센터 확충) 동가공제품의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, 동남아의 슬리팅 센터 확충을 적극 활용
플라 스틱	○ (금년 증가세)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신규수요와 시장 개척 성과로 금년 증가세 전망 ○ (내년 둔화) 유럽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라 내년도 수출증가율 둔화 전망	○ (할당관세 적용) 제조원가 부담 경감 위해 수입 합성수지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 요청 ○ (판로지원) 협동조합 등 업종별 협·단체를 통한 국제전시회 공동참가 지원
공작 기계	○ (설비투자 위축) 유럽, 중국 경기 둔화로 설비투자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위축 - 세계경제 저성장세가 '1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작기계 산업도 어려움 지속 예상	○ (산업협력) 한-인니간 공작기계 산업협력을 통한 수출 확대 추진 - 현지세미나 및 수출상담회(10.22~25), 바이어초청(11.26~29) 등 적극적 마케팅